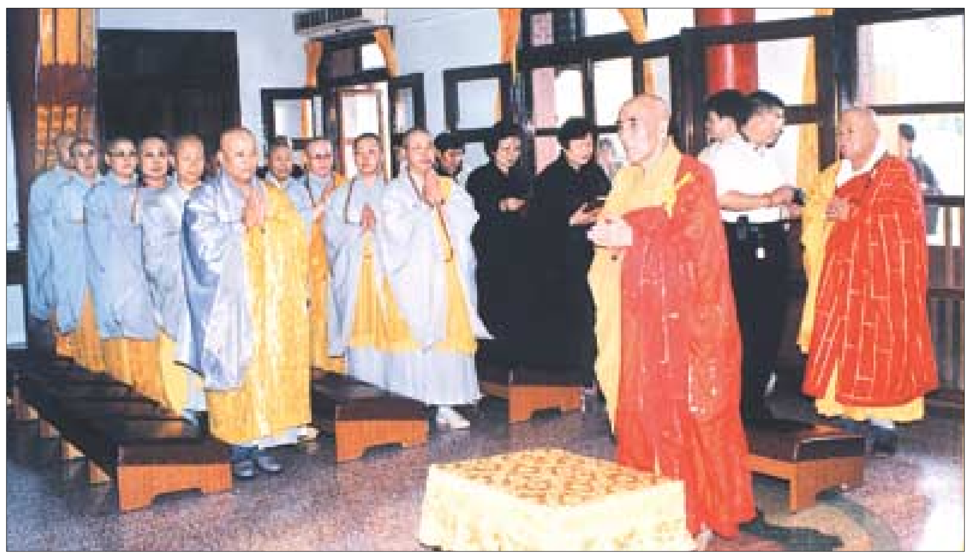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 세계로 가는 종단"



◇2002년 7월 대만 복헤사에서 열린 혜삼조사 법맥전수식.

한국불교-종단순례

대한불교 원융종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002년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2002년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 등 자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5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원융종 종지종풍

- 종조 : 태고 보우국사
- 창종 : 1980년 3월 26일
- 소의경전 : 금강경
- 종지: 석가세존의 원융무애(圓融無碍) 사상을 체(體)로 삼고 대승보살행을 용(用)으로 하여 태고(太古) 종조(宗祖)의 종풍을 선양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 한다.
- 종통 : 태고 보우국사의 제종포섭(諸宗包攝)에 의한 불법중흥의 원융종풍을 종통으로 삼아 그 법맥(法脈)은 청허(淸虛)와 부휴(浮休)를 거쳐 이후 면면히 계계승승한다.

대한불교원융종 조직

종정 : 영산일공	부종정 : 유념 법신
원로원장 : 송산	원로위원 : 선명·효계·벽봉
총무원장 : 법륜	중앙종회 의장 : 성관
중앙비구니회 회장 : 대월	총무원 부원장 : 선진
포교원장 : 체관	문화원장 : 정관
중앙종회 부의장 : 천호·인관	중앙비구니회 부회장 : 선덕
재무부장 : 대월	규정부장 : 석경
사회부장 : 풍원	사업부장 : 체도
인천종무원장 : 법원	충남종무원장 : 체의
전남종무원장 : 진운	부산종무원장 : 대천
경남종무원장 : 은혜	경북종무원장 : 불선
대구종무원장 : 송월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23
전화 (02)853-0531
팩스 (02)853-0533

사회 혼란 치유하는 종교돼야 융화정신이 행복한 삶의 열쇠

종정 영산 일공 대종사

원융종 창종과 더불어 총무원장을 지내고 제3세 종정에 오른 영산 일공(靈山 一空) 대종사. 스님은 태고 보우국사의 원융회통 사상을 오늘날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종교 갈등, 정치적 혼란, 경제 위기 등은 중심을 잡아주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불교가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태고 스님의 원융무애 사상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공 스님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종단이 부지기수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교에서도 원융사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불교로부터 질서를 회복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것이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종단들이 많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종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근간으로 하는 종단이라면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소의경전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지만, 궁극에 있어서는 부처님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찾아오는 모든 불자들에게 불교를 생활속에서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신앙이 생활 속에 구현될 때라야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가르침이다. 또 스님은 불자들도 포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믿음이 자신 한사람에 한정되면 이미 종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남이 잘 살자고 하는게 종교거든요. 자신의 믿음을 가족에게 나아가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와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1931년 태어난 일공 스님은 예산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합천 해인사, 서울 대성암, 동두천 광덕사 등지에서 수행에 매진했다. 원융종 창종 당시부터 97년까지 총무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97년 제3세 종정에 추대됐다.

종도가 자부심 갖도록 종단변화 유도 내년부터 사찰 재등록·승려 분한신고

총무원장 법륜 스님

"종단의 발전은 종도들의 애종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종도들이 종단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종단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원융종 제7대 총무원장 법륜(法輪) 스님은 이같은 새해 종단 운영 계획을 밝히고, "교육체계를 바로 세우고 종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총본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해 교육, 수행, 종무행정 등을 총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륜 스님은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을 비롯해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은 "힘 있는 종단,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종단이 되기 위해서는 종단과 지역사찰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종무, 교육,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걸쳐 7개 지방종무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비구니회 등 산하조직의 활성화를 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지만 강한 종단'으로 변모시켜 한국불교와 사회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스님은 "주지총회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고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는 사찰은 이제 더 이상 종단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2004년부터 종단 소속 사찰의 재등록 및 승려 분한신고 등을 통해 종단발전과 종무행정에 참여할 뜻이 있는 사찰과 종도만 엄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종단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모든 소속 사찰이 한가지씩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종무행정의 정보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종단' 만들기에 진력할 예정이다.

법륜 스님은 원융종 총무부장, 총무원 부원장을 거쳐 98년 제6대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제7대 총무원장에 재선돼 종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2000년 3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창종 제 20주년기념 및 나라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 모습.

태고 보우국사 원융무애사상 계승 전신 대한불교원융원…80년 창종

산하 400여 사암, 조직 활성화·복지활동 확대

대한불교원융종(大韓佛教圓融宗)은 80년 3월 창종 됐다. '한국불교에 새로운 종풍을 세우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69년 대한불교원융원을 설립한지 11년만의 일이었다. 82년에는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원융종의 종조인 태고 보우국사는 중국 임제종 석옥(石屋) 청공(淸珙) 선사의 법맥을 이은 28대손으로, 한국 선불교의 초조(初祖)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태고 스님은 제종포섭(諸宗包攝)과 원융무애(圓融無碍) 사상을 바탕으로 9개로 나뉘어 있던 선문구산(禪門九山)을 일문(一門)으로 통합하고자 노력했다. 원융종은 이러한 태고 스님의 사상을 오늘날의 한국불교에 뿌리내리고자 맺어진 결사라 할 수 있다.

원융종에는 400여 소속 사암을 7개 종무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서울 구로2동 원융사는 종단의 총본산이면서 종정 일공 스님이 주석하는 사찰이다. 또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도 이 곳에 두어 종무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그동안 원융종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불교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매년 '나라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어 국민과 함께 하는 종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종단진흥회,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등의 협의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은 물론, 국가적인 행사 때마다 성공적인 개최를 발원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원융종은 이같은 전통을 계승하면서 향후 내적으로는 종도들을 결속하고 외적으로는 사회적 역할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단의 교육체계를 바로 세워 소속 사암과 종도들의 소속감·애종심을 심어주는 한편, 지방종무원, 중앙비구니회 등 산하 조직의 활성화와 소속 사암별 사회복지활동의 참여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정 일공 스님과 총무원장 법륜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의 기강을 바로 잡고 승풍을 진작함으로써 21세기 선진종단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융종 총본산인 원융사 창건 낙성법회.